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2024. 12. 15(다해) / 제2130호



자선적 조치가
나를 그분의
의
프랑스에
드림

로카 3장 16절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입당송 |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 스바 3,14-18ㄱ

화답송 | 이사 12,2-3,4ㄴ ㄷ,5-6(◎ 6)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2독서 | 필리 4,4-7

복음 환호송 |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 루카 3,10-18

영성체송 |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1면 성화_정은정 아가다 作

음성지원QR

오늘의 본기도는 우리가 대림 시기를 기다리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즐거운 마음을 되찾기 위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우리에게, 제1독서 스바니야 예언서는 용기를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우리는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요한 세례자에게 질문하는 군중처럼, 우리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을 제2독서 필리피서를 통해 바오로 사도는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평화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원을 아뢰는 주일이 되시길 빕니다.

글 | 김동우 바오로 신부(교구 사무처 차장)



성탄절의 주인공

글 | 노인빈 엑벨트 신부(장호원 본당 주임)

어느덧 우리는 대림 제3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맘때가 되면 온 동네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음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동네 슈퍼마켓, 문구점(문방구) 등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전구나 트리 장식을 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성탄절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동네가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대형 교회나 성당에 전구나 트리가 없으면 아무도 성탄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좀 재미가 없습니다. 온 동네가 성탄 분위기면 ‘그래, 내가 신자로서 보람을 느끼는구만...’하고 생각할 텐데, 요즈음은 그냥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성탄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를 권합니다.

대림 시기는 기다릴 대 ‘待’와 임할 림 ‘臨’을 써서 ‘임하심을 기다리는 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한 세례자에게 질문하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 세례자는 그들의 직업을 고려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의 대답이 명료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복음은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전파합니다.

대림 시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마치 산타 할아버지 같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줄어들고 산타 할아버지의 자리가 커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지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엄격한 옛 은사님을 기다리는 것과, 사랑하는 손자를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이 다른 것처럼, 대상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마련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이시며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혼인, 왜 쉽게 풀어주지 않나요?

글 | 윤영민 요셉 신부(교구 법원 재판관)

“천주교에서는 왜 혼인을 쉽게 풀어주지 않나요?”라는 질문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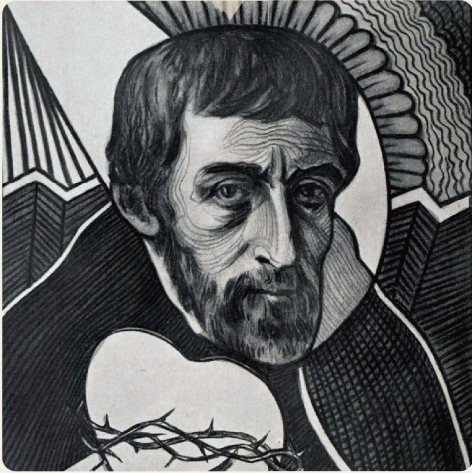
이 질문에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교회법적 절차’입니다.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도 ‘이혼소송’ 이외에 ‘혼인무효소송’이 존재하는데, 이 둘은 명백히 다른 소송입니다. ‘이혼’은 양측 모두 이전의 ‘혼인’이 존재함을 인정하나 현재는 그 혼인 관계가 끝났음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무효’는 적어도 한쪽이 이전에 있었던 혼인을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혼인’이라고 주장하고, 그 혼인이 무효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무효소송’이 진행되고 ‘혼인무효’가 선언되면, 말 그대로 이전의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대답으로, ‘혼인이 무효라는 것(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혼인)을 증명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쉽게 ‘혼인을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혼인이 무효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왜 무효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이혼했다는 것(이혼의 사유)만으로 혼인무효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은 역설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었던 혼인이었다고 인정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적인 답변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혼인이 ‘성사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답변입니다. 혼인성사를 거행했다면 부부는 말 그대로 ‘성사’ 안에서 부부로서 하느님의 성사적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관면혼 역시 성사에 준하는 예식을 거행하고 교회가 인정한 혼인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른 성사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간단해 집니다. 어떤 분이 세례성사를 받고 살다가 어느 순간 더는 신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경우, 그분이 ‘세례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쉽게 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중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없었던 것(무효)으로 해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세례성사나 고해성사와 같은 다른 성사에 대해서는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혼인성사는 무효로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빠르게’ 무효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혼인성사 역시 칠성사의 하나로 엄연한 ‘성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이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St. Petrus Canisius
_by Jan Kruysen_photo from Our own magazine
-magazin for teaching religious in 1925

루터에 맞서 가톨릭교회를 수호한 성 카니시오 (축일 12월 21일)

글 |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 사제였던 루터는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며 개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많은 가톨릭 신자가 프로테스탄트(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특히 루터의 고향인 독일에 개종자 수가 무척 많았습니다. 개신교의 급증으로 독일 가톨릭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때에 카니시오는 독일 전역을 다니며 설교와 강의로 교회를 다시 살리려 애썼습니다. 지금 독일에 가톨릭 신자가 많은 것은 모두 카니시오의 노력 덕분입니다. 카니시오는 쓰러져가던 유럽 가톨릭교회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니시오(1521~1597)는 네덜란드의 부유한 귀족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다섯 살에 입학한 독일 쾰른대학 법학과에서 훌륭한 교수를 만났고, 그것은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했는데, 이냐시오 데 로올라가 만든 예수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침, 쾰른에는 로올라의 제자인 베드로 파브르 신부가 와 있었고, 그에게 예수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카니시오는 30일 동안 피정하고, 예수회에 입회했습니다.

당시 예수회는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카니시오는 개신교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가톨릭을 부흥시켰고, 가톨릭 교부(敎父)들의 저서를 쉽게 풀이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황제가 쾰른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니시오는 황제를 만나 쾰른교구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며, 그 책임은 모두 쾰른교구 대주교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파면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대주교는 개신교로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황제는 카니시오의 말을 들었습니다.

카니시오는 신품성사를 받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트리엔트 공의회에 두 번이나 참석해 가톨릭 교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교개혁에 맞서 가톨릭의 교리와 체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공의회 후에 카니시오 신부는 로마로 가서 이냐시오 데 로올라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로올라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카니시오 신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를 차례로 순례하며 가톨릭교회 재건 운동을 펼쳤습니다. 카니시오 신부가 가는 곳마다 가톨릭교회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노래하리라”(가톨릭성가 67번)

✝ 수원교구 인사발령

신부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윤용배	성루카의료원 원장	성사전담사제
이원태	지동 본당 주임	태평동 본당 주임
김상순	매탄동 본당 주임	성사전담사제
황치헌	수원가톨릭대학교	국내수학
이정혁	사회복음화국 직장사목위원회 위원장	휴양
김승만	사회복음화국 병원사목위원회 위원장	성루카의료원 원장
임유택	양동 본당 주임	안식년
이재열	동백성루카 병원 영성지도신부	지동 본당 주임
이석재	해외선교	국내연수
김형준	화서동 본당 주임	안식년
이정재	안식년	칠보 본당 주임
박상일	유학	2027 WYD 사무국 부국장
박유현	수원가톨릭대학교	단대동 본당 주임
최원섭	사회복음화국 병원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음화국 병원사목위원회 위원장
전현수	성소국 부국장	안식년
임지용	중견사제연수	사회복음화국 병원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윤영민	중견사제연수	화서동 본당 주임
조봉익	중견사제연수	초월 본당 주임
조태현	중견사제연수	성소국 부국장
최해용	중견사제연수	사회복음화국 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권진희	유학	매탄동 본당 주임

신부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이나라	중견사제연수	해외선교연수
이지성	중견사제연수	사회복음화국 직장사목위원회 위원장
강유빈	태평동 본당 주임	수원가톨릭대학교
박준후	초월 본당 주임	양동 본당 주임
김승철	유학	국내연수
이응준	칠보 본당 주임	사회복음화국 병원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임채룡	사회복음화국 생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국내수학
신종태	해외선교	국내연수
성진호	단대동 본당 주임서리	국내연수
양두영	국내수학	국내연수
현정훈	유학	수원가톨릭대학교
유동철	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부원장	해외선교연수
김준형	미리내 본당 부주임	해외선교연수
정도묵	해외선교	천진암 성지 부주임
김영복	분당성요한 본당 제1보좌	2027 WYD 사무국 부국장
성정현	울전동 본당 보좌	해외선교연수
이현종	산본 본당 보좌	인덕원 본당 보좌
서경천	대천동 본당 보좌	권선동 본당 보좌
차재일	정자동 주교좌본당 보좌	이천 본당 보좌
이찬희	영통성령 본당 보좌	발안 본당 보좌
유진엽	철산 본당 보좌	북수동 본당 보좌

부임일 2024. 12. 17(화) / 총 84명

신부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신부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박기정	천진암 성지 보좌	분당성마태오 본당 제1보좌	이민건	위례성데레사 본당 보좌	성북동 본당 보좌
정재규	분당성마태오 본당 제1보좌	오산 본당 보좌	송빈	평촌 본당 보좌	철산 본당 보좌
박승원	이천 본당 보좌	중앙 본당 제1보좌	장동혁	동천동 본당 보좌	용호 본당 보좌
백경한	발안 본당 보좌	정자동 주교좌본당 보좌	김의준	비산동 본당 보좌	신봉동 본당 보좌
조보성	분당이매동 본당 보좌	문경성요셉치유마을 부원장	권영수	용호 본당 보좌	분당성요한 본당 제2보좌
장재영	인덕원 본당 보좌	동탄영천동 본당 제1보좌	고건	오전동 본당 보좌	율전동 본당 보좌
박태현	중앙 본당 제1보좌	대천동 본당 보좌	지현승	지동 본당 보좌	산본 본당 보좌
정민규	오산 본당 보좌	휴양	최영환	동탄영천동 본당 제2보좌	위례성데레사 본당 보좌
김상엽	상현동 본당 제1보좌	오로지종합복지원	양규진	분당성마태오 본당 제2보좌	군포 본당 보좌
임경수	분당성요한 본당 제2보좌	분당성요한 본당 제1보좌	김준교	중앙 본당 제2보좌	원천동 본당 보좌
박상현	원천동 본당 보좌	오로지종합복지원	고준	권선동 본당 보좌	동판교 본당 보좌
정원재	분당야탑동 본당 보좌	상현동 본당 제1보좌	조현근	상현동 본당 제2보좌	영통성령 본당 보좌
손인상	군포 본당 보좌	유학	권영익	새신부	호평 본당 보좌
김도우	분당성루카 본당 보좌	별양동 본당 보좌	신용주	//	평촌 본당 보좌
정풍모	별양동 본당 보좌	분당이매동 본당 보좌	장진석	//	동천동 본당 보좌
김혁주	동판교 본당 보좌	유학	이상필	//	비산동 본당 보좌
추경태	신봉동 본당 보좌	해외선교연수	나현성	//	분당성마태오 본당 제2보좌
이관희	복수동 본당 보좌	유학	김동휘	//	상현동 본당 제2보좌
천상영	호평 본당 보좌	분당야탑동 본당 보좌	심기윤	//	중앙 본당 제2보좌
민윤섭	동탄영천동 본당 제1보좌	분당성루카 본당 보좌	정윤상	//	동탄영천동 본당 제2보좌
박상현	분당성요한 본당 제3보좌	오전동 본당 보좌	정영훈	//	분당성요한 본당 제3보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상징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수원교구 순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상징인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가 12월 17일(화)부터 28일(토)까지 수원교구를 순례합니다.
수원교구청과 수원화성순교 성지에서의 순례를 '천주교 수원교구'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하오니 교구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수원교구청

일시 12.17(화) 14:00

수원화성순교 성지

일시 12.20(금) 20:00



▲영상보기[유튜브'천주교 수원교구']

특별헌금

자선 주일에는 「교구 사회복음화국 지원 특별헌금」이 있으니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기억할 사제



정덕진(루카) 신부
1996년 12월 19일 선종



배영무(라우렌시오) 신부
2000년 12월 20일 선종

교정사목위원회 월례기도모임

일시 12.18(수) 10:30~16:00
장소 교정사목위원회 밝음터
대상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준비 묵주, 미사도구(점심식사 개별)
문의 031) 446-7909
사회복음화국 교정사목위원회

젊은이 기도모임

'열린 찬양 미사', '열린 찬양 기도회'

열린 찬양 미사
일시 25.1.4(토) 16:00~18:00
열린 찬양 기도회
일시 25.1.18(토) 16:00~18:00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20:00~22:00
장소 제2대리구청
대상 세례받은 청년
기타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음카페
'수원교구 젊은이 기도모임' 검색
문의 031) 360-7636 제2대리구 청소년3국

수원화성순교 성지 순례해설사 양성 교육

일시 25.1.19(주일)~2.23(주일)
6주간 15:00~16:30
장소 수원화성순교 성지
문의 031) 246-8844~5
수원화성순교 성지

수원화성순교성지 1월 순교영성 피정

일시 25.1.3(금) 14:00~17:00
장소 수원화성순교 성지(북수동 성당)
4층 대강당
강사 한민택 신부
문의 031) 246-8844~5 수원화성순교 성지

양지 영성교육원

장소 양지 영성교육원
예수마음기도
일시 25.1.10~12, 2.14~16
시작 17:00~마침 15:00
비용 20만 원
강사 권민자 수녀
효소절식
일시 12.27~29, 1.24~28, 2.21~23
비용 27만 원(효소값 포함, 2박 3일)
내용 몸과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채우는 시간
문의 031) 321-9054, 9060
양지 영성교육원

생태영성 월피정

일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0:00~16:30
장소 수리산 성지 고택 성당
비용 2만 원
참고 15명 선착순
문의 031) 465-8311
사회복음화국 생태환경위원회

2025년 수원교구 신년음악회 '희망의 순례자들'

일시 25.1.8(수) 19: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비용 전석 무료(초대) *선착순
신청 본당 사무실(사전 신청자만 입장 가능)
문의 070) 4108-8890 교구 성음악위원회

상설고해소

북수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246-8844~5

성남동 성당
일시 매주 화요일 14:00~16:00
문의 031) 754-0409

중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441-3531

평택 성당
일시 매주 목요일 14:00~17:00
문의 031) 654-2702

미사·피정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2.16(월) 10:00 송탄 성당
 12.17(화) 10:00 영통성령 성당
 12.18(수) 10:00 비전동 성당, 안중 성당
 성남동 성당
 12.20(금) 10:00 철산 성당, 하안 성당
 14:00 복수동 성당
 12.27(금) 10:00 신갈 성당
 문의 02) 3673-2525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전례꽃꽂이연구회 12월 종강 미사

일시 12.16(월) 10:3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참고 cafe.naver.com/floralliturgy
 문의 010) 6278-2488
 수원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장소 서울 명상의 집
대림 피정
 일시 12.17(화)
송년 피정
 일시 12.31(화)~25.1.1(수)
개방의 날 무료 피정 매월 첫 금요일
 일시 25.1.3(금) 10:00~15:30
다네이 영성수련 1차(대침묵)
 일시 25.1.10(금)~12(주일)
 문의 02) 990-1004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마리아사제운동 월례미사

일시 12.19(목) 14:00~16:0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미사 유승우 신부
 문의 010) 9424-2701
 수원교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일시 1박 2일 12.21~22, 2.14~15
 3박 4일 2.26~3.1
 4박 5일 2.17~21(성직자, 일반)
 8박 9일 12.26~1.3, 1.6~14
 40일 25.4.21~5.30
 문의 010) 4906-5722, 031) 953-6932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일시 (한라산 포함) 1.11~13, 1.16~18, 1.20~22
 1.24~26, 2.1~3, 2.7~9, 2.15~17(제주T/S)
 2.21~23, 2.25~27
 내용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 중)
 문의 02) 773-1455, 064) 796-4182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제주 면형의 집 피정

한라산 포함
 일시 1.17~19, 1.23~25, 2.8~10
 2.14~16, 2.22~24
추자도 포함
 일시 3.1~4, 3.9~12
생태순례
 일시 3.15~17, 3.22~24
 내용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문의 02) 773-1463, 064) 756-6009
 제주 면형의 집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일시 2.3~3.10 매주 월요일 09:00~12:30
 장소 상현동 성당
 회비 3만 원
 참고 매주 미사 봉헌
 강사 2.3 김연준 신부
 2.10 양창우 신부
 2.17 유재걸 신부
 2.24 신동규 신부
 3.3 김석훈 신부
 3.10 김연준 신부
 문의 031) 243-6171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교육·모집

다은학당 겨울포럼

일시 12.26(목) 14:00~16:00
 장소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1층
 주제 교부시대의 금욕적 수행과
 그리스도인 여성들
 강사 전경미 박사(서강대 신학연구소)
 비용 무료(ZOOM 수강 가능)
 문의 031) 227-7857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MBTI로 나의 성향 알기

일정 12.28(토) 10:00~16:00
 장소 우만동 수녀원
 문의 010) 7342-9300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신입 단원

연습 매주 수요일 18:00~20:30
 매주 토요일 10:00~12:30
 장소 제2대리구청
 대상 9~13세
 신청 이메일 sjha0701@naver.com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8592-1851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성음악 클래식 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일시 월, 화, 수, 금, 토 13:30
 장소 삼동역 본회
 지도 김경희 신부
 문의 010) 9297-1543
 가톨릭 성음악 클래식기타회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과정 교리학과 10:50~15:40, 주5일
 종교학과 19:00~21:35, 주4일
 내용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2년)
 대상 세례 3년 이상,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기타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마감 25.1.17(금)
 참고 ci.catholic.ac.kr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신입 단원

연습 매주일 13:30~16:00
 장소 정자동 주교좌성당 4층
 대상 37세 이하 세례자 (예비신자) 남녀
 전공 무관
 참고 카카오플러스친구, 카카오픈채팅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문의 010) 3214-0797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수원가톨릭합창단 반주자

대상 세례받은지 3년 이상
 전례 이해와 반주 경험이 풍부한 자
 마감 25.1.31(금) 18:00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 8767-3735 수원가톨릭합창단

동백성루가 병원 CPE교육

일시 1.31~5.16 매주 금요일
 09:30~17:30(16주)
 장소 동백성루가 병원
 신청 www.db-luke.or.kr
 문의 070) 4226-8603
 031) 548-0010(ARS 5번)

재속 맨발가르멜회

일시 매월 넷째주 주일
 대상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견진)
 만 55세 이하
 문의 010) 7673-5013
 재속 맨발가르멜 성 알베르토 공동체

기 타

제주·해외·한국성지167 성지순례

일시 1.21 태국, 파타야 5일
 2.6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2.23 나가사키 4일
 3.25 그리스, 튀르키예 12일
 참고 www.michaeltour.co.kr
 문의 010) 8650-9690 미카엘 여행사

라파엘 여행사 해외성지순례

일시 2.5 나가사키 4일. 139만 원
2.12 성모님 발현지 12일(대한항공)
495만 원
2.24 이집트 일주 14일. 530만 원
3.3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초특가 385만 원
3.9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 원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 원
4.22 이탈리아 11일. 415만 원
문의 02) 778-8565 라파엘 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일시 2.8 성모발현지 12일(아시아나)
545만 원
3.9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460만 원
3.11 동부유럽 4개국 11일 395만 원
4.1 산티아고 도보순례 12일 499만 원
문의 02) 2281-9070 가톨릭신문사

국내 해외 성지순례

일시 3.17 출발 10박 12일
장소 성모님 발현지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문의 031) 706-9175 비안네성지순례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일시 4.24~5.5
장소 성모발현지(루르드, 바뇌, 파티마 등)
비용 520만 원
문의 010) 7374-3217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라파엘상담센터

일시 월~금 10:00~17:00(시간 조정 가능)
내용 심리상담
방법 대면상담
참고 사전 예약 필수
문의 031) 446-7573 중앙 성당
031) 726-5115 분당구미동 성당

채용·봉사자

본당 직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정자꽃뫼 본당 관리장 / 채용 시
죽산 성지 관리원 / 채용 시

봉사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과천 본당 지휘자 / 채용 시
이천 본당 반주자·지휘자 / 채용 시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봉사자

분야 문서·한글, 워드, 디자인, 편집, 교정 등
출판 업무
회원·후원 안내 상담 및 교육 피정 연락
업무(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가능자 환영)
홍보-인터넷, 디지털, 웹디자인, SNS 등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등
아시아 지역 언어
학술-선교학, 신학, 철학, 종교학, 역사학
인류학, 등 석·박사 학위소유자
문의 031) 268-2210, 010) 8376-7031

교구 내 병원 원목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문의 031) 412-5447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문의 031) 787-1877

성남시의료원
문의 031) 730-4501

아주대학교 병원
문의 031) 211-5419

용인 세브란스병원
문의 031) 329-7725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문의 02) 2610-9466

평택 성모병원
문의 070) 5012-3679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문의 031) 8086-297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평촌)
문의 031) 380-4187



2025년 수원주보 신앙스크랩 공모 '사진 한 장'에 담긴 여러분의 짧은 추억을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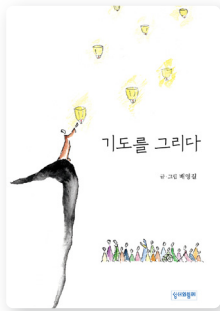
▲ 참여방법

주 제 '사진 한 장'에 담긴 나의 신앙 추억
예) 여름신앙학교 때의 추억, 첫영성체날,
신부님·수녀님과의 추억 등
분 량 사진·한 장(사진 설명 필수)
원고- 200자 이내

접 수 culture@casuwon.or.kr
참 고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본당명, 이름(세례명),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여부는 주보편집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 의 031) 242-8081 교구 홍보국

문화산책

신간 및 공연 게재신청 : 홍보국(hongbo@casuwo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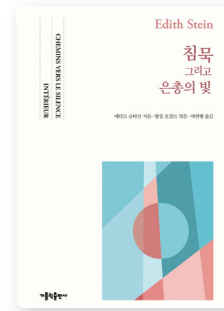
기도를 그리다

이 책은 예수님의 강생에서 공생할, 파스카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네 개의 부로 구성됩니다. 각 부 첫머리에 실린 간결한 에세이와 그림, 묵상 글, 그리고 말씀은 독자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주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

김상인 신부가 차동엽 신부의 깊은 묵상 중 '다해'의 복음만 골라 모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주님께 받은 충만한 위로와 기쁨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침묵 그리고 은총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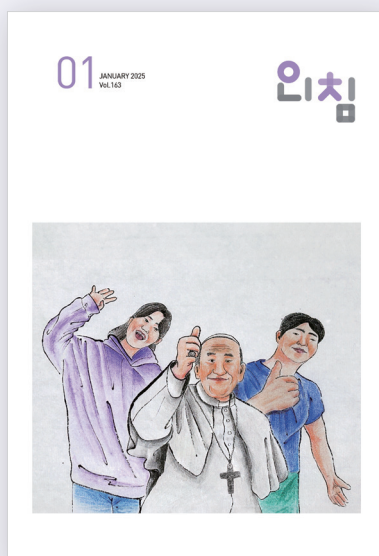
이 책은 하루를 어떻게 주님의 은총 안에서 보낼 수 있는지를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묵상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한 진리 탐구, 이웃 사랑, 인간 존재의 의미, 교회 생활 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글 · 출판 | 배영길·성서와함께
금 액 | 1만9천 원
문 의 | 02) 822-0125

글 · 출판 | 김상인·위즈앤비즈
금 액 | 2만5천 원
문 의 | 031) 986-7141

글 · 출판 | 에디트 슈타인·가톨릭출판사
금 액 | 1만3천 원
문 의 | 02) 6365-1888

수원교구 사목월간지 「외침」



1월호 주요 코너

히년, 희망의 순례자들 히년, 기쁨과 은총의 해
2027 WYD
생생 수원교구 여기! 제14회 한국부에리칸도레스 합창제
로마로 가는 순례
작은 교회, 우리 사이 신둔성당 민들레 봉사단
나는 사제다 현영민 루도비코
소란스럽고 발칙한 나의 성당 적응기 천국행 티켓도 아니고
성당 가는 길 광명성당
영성가와의 산책 양트완느 슈브리예 신부
나이 둘의 시간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평화
성사, 하느님을 만나는 문 마음으로만 믿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윤리로운 신앙생활 히년과 나눔
지혜이야기 역설과 함께 살아가기
소공동체 바라봄 다시봄

정기구독료 월 4,000원(1년 40,000원)
문의 T.031-248-1811

구독 신청 ▶



외침 eBook ▶



가톨릭신문사 www.catholictimes.org



가톨릭신문 유튜브



facebook.com/catholictimes